

Vol. 123

2024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3·4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HARMONY
HOPE
HAPPINESS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 비전 ★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한센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구축
- 한센사업 전문기관으로 역량 강화

★ 미션 ★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 사업목표 ★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 사업소개 ★



★ 로고 ★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 총연합회 공식 SNS 채널 |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春,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미래

04 스페셜 리포트

- 정기 이사회
- 정기 대의원총회

06 한센 리포트

- 시·도 지부장 회의
- 치매예방교육
-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 찾아가는 문화복지
- 제21회 한센인의 날 개최
-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한센 현안 사항 협의
- 총연합회 추진 사업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한센탐방

24 지부는 지금

- 울산·경남지부

25 유관단체동정

- 한국한센복지협회

26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 어르신들과 함께 '나만의 온도계' 만들기
- 웃음꽃 피어난 따뜻한 정월 대보름, 웃놀이 행사 개최

한센공감

28 함께하는 한센

- 친구여!_신재문(영락마을 대표)
- 리더의 품격_박우택(서울·중부지부 지부장)
- 일본 국립 한센병 자료관 방문_오문수
- 도성의 사계: 에그갤러리

한센이모저모

42 한센병 바로알기

48 정보알리미

- 우리나라 당뇨병 연구의 근간이자, 국가보건의정책의 길잡이가 되다
- 몸을 굽는 이유
- 5월에 먹어야 할 제철 음식 6가지
- 요즘이책

62 독자들의 공간

- 가로세로 낱말퀴즈
- 한센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정기 대의원총회



치매예방교육



찾아가는 문화복지



春,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미래



사랑하는 한센 가족 및 후원자 여러분!

이 봄, 자연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목표와 꿈을 안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계절 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을 잊지 않으며, 이제 봄바람을 따라 보다 더 활기찬 한 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총연합회 주요 사업으로 △한센인 평생교육사업(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한센인 복지사업(찾아가는 문화복지,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독거노인 돌봄사업), △기획·홍보사업(전국 한센인의 날,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대중매체 및 종교기관 모니터링, 홍보매체 운영)이 있으며, 특히, 2024년부터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등 한센인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시행으로, 한센인들의 노후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성곡마을을 시작으로 부평마을과 낙산마을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대표적인 치매를 예방하고자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한센 어르신들에게 풍성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민마을과 희망마을에서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통해 고령의 한센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강 증진과 낙상예방 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전해드리기 위해 호혜 마을에서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을 실시하여 겨우내 움츠렸던 정착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밖에도 총연합회는 한센인 고령화에 맞춘 복지증진, 인권신장, 각종 정착마을 민원 해결을 위해 복지부 등 유관 부처 및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센인 삶의 만족도 향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는 5월 17일, 소록도에서 개최되는 ‘제21회 한센인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센 가족들과 만남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하나 되어 깊은 연대와 소통을 이루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한센 가족들을 소록도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센 가족 및 후원자 여러분! 사자성어 ‘始終如一(시종여일)’은 ‘처음과 끝, 시작과 마무리가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처음의 의도나 목표와 끝나는 결과가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변함없는 신뢰와 협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고 끝까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총연합회도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변함없는 신뢰와 협력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정기 이사회



총연합회는 2월 20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길용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본부와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정관 변경(안) 등을 상정하였고,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아울러,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구하기로 하였다.

이길용 회장은 “항상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임원들의 지지와 협력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기 대의원총회



2월 27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길용 회장을 비롯한 총연합회 임직원들과 전국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이길용 회장의 개회 선언과 성원 보고에 이어 ▲감사보고 ▲2023 사업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정관 변경(안) 승인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기타 토의 사항으로 한센인 2세의 선거권 및 이사 증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길용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우리 총연합회가 지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회원들의 협력과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총연합회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의 위로지원금을 증액시키고, 한센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부장 회의



3월 26일 대구에서 이길용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센병 치료 기준 투약 관련’에 관한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변경 사항과 함께,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를 위한 ‘위로지원금’ 증액 및 ‘제21회 한센인의 날’ 행사 등 업무 추진 계획이 논의 되었으며, 이를 위해 총연합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총연합회 상반기 사업을 위해 시·도지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총연합회와 지부 간의 협력과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길용 회장은 “총연합회와 시·도지부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이번 ‘제21회 한센인의 날’ 기념 사업이 더욱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지력과 체력을 높이는 치매예방교육



총연합회는 3월 19일 성곡마을(경북 포항시, 대표 안경순)을 시작으로 부평마을(인천광역시, 대표 권태우)과 낙산마을(경북 칠곡군, 대표 박건영)에서 2024년 치매예방교육을 시작했다.

본 교육은 정착마을과 근접한 위치에 있으며 치매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정착마을 한센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주 강사와 함께 보조강사를 배치하여 교육생의 교육 적응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여 추진하고 있다.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아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치매가 발병할 때 건강 악화 및 신체적 부상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치매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력을 향상하는 인지 훈련을 하여 치매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뇌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병행하여 인지력과 함께 체력을 단련하는 종합적인 치매예방교육으로 정착마을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길용 회장은 “고령화로 인해 한센인의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 우리 총연합회는 치매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한센인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강화하여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성곡마을 치매예방교육





행복을 더하는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총연합회는 4월 17일 영민마을(전남 영광군, 대표 김형철)을 시작으로 희망마을(경북 경주시, 대표 강완주)에서도 노년 생활에 행복을 더하는 2024년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은 평균 연령이 80세인 한센인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대하기 위해 3가지 분야의 교육을 균형 있게 구성하였다.

건강 증진 교육으로 건강증진과 낙상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생활 활용 교육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감 증대 교육으로 웃음 치료, 원예 등 한센인 어르신에게 행복감을 주는 교육을 구성하여 노년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어르신은 “나이가 드니 넘어서서 상처를 입는 주민들이 있는데, 낙상예방 교육을 하게 되어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기능을 사용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을 통해 한센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도전하고, 배움이 주는 노년의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봄 꽃향기와 함께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



총연합회는 3월 26일, 호혜마을(전라남도 나주시, 대표 윤재갑)에서 ‘찾아가는 문화 복지 사업’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은 매년 총연합회에서 전국의 정착마을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 및 고령으로 외출 등이 제한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문화 공연을 펼치는 사업으로 비한센인과의 문화 활동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한센인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호혜마을에서 펼쳐진 품바 공연과 마술 공연은 한센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공연으로 이루어져 정착마을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한센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였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정착마을 한센인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웃음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한센인들이 많이 웃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가서 사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5월 17일, 소록도에서 만나요! - 제21회 한센인의 날 개최 -



▲제20회 한센인의 날

한센인을 위한 최대 행사인 ‘제21회 한센인의 날’ 행사를 2024년 5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하여, 한센인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유공자 포상 시상식과 배구 및 노래자랑 등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오랜만에 소록도를 찾은 한센인들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억 사진관’과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이 운영된다.

‘추억사진관’은 한센인의 날을 기념하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바로 인화된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 이는 소록도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은 한센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장수 사진 촬영의 기회를 제공하며, 촬영에 필요한 메이크업·헤어·의상 등 전반적인 촬영 서비스가 제공되며, 행사 이후 액자로 제작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제21회 한센인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고, 우리가 하나 되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1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8주년

일 시 2024년 5월 17일(금) 10:00~

장 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행사일정

1부 식전행사

2부 기념행사

| 유공자 포상 |

| 기념사 · 대회사 등 |

3부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

| 배구경기 |

| 노래자랑 |

■ 추억사진관 (복합문화센터 외부에서 별도 진행, 10시~14시까지)

■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복합문화센터 외부에서 별도 진행, 10시~14시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제21회 한센인의 날,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

▣ 배구경기 한국한센총연합회 vs 국립소록도병원

일 시 2024년 5월 17일 11:00

장 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 전국 한센가족 노래자랑

일 시 2024년 5월 17일 11:30

장 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참가신청 한센가족 · 비한센인 · 연령 · 남/여 구분 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

시상내역

- 1위 - 2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 2위 - 15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 3위 - 1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 4위 - 5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 추억사진관

소록도에서의 추억을 사진으로 담아드립니다.

행사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즉석 카메라를 통해 추억을 기록해 보세요

일 시 2024년 5월 17일 10:00 ~ 14:00

장 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일대

내 용 즉석 사진 인화 제공

■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한센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장수 사진 촬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 시 2024년 5월 17일 10:00 ~ 14:00

장 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일대

신 청 시·도지부를 통해 사전접수

내 용 메이크업·헤어드라이, 의상(한복·양복)제공, 사진 촬영, 촬영 이미지 후보정, 액자 제작 등

소외 없는 노년을 위한 희망

-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우리 총연합회는 4월부터 11월까지, 65세 이상 한센인 중 1인 가구 60명을 대상으로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

총연합회는 사업에 참여하는 60명의 한센인 독거노인에게 월 1~2회 지속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 건강 관련 사항 및 생활 환경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하고, 생활사·건강 등의 개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독거노인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된다.

한센인의 평균 연령이 80세로 나타난 가운데, 독신 가구가 5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센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한센인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소외와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서적 돌봄뿐만 아니라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위기에 대처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센 현안 사항 협의

우리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증액 등 한센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2025년에는 21만 원, 중기적으로 25만 원, 이후 장기적으로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증액시켜 한센인들의 노후 생활 증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총연합회는 지속적으로 한센인의 복지증진 및 인권 신장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및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총연합회 추진 사업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거동이 불편한 한센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을 운영합니다.



사업시기 5월 ~ 10월 중

대상 희망 정착마을 3개소

장소 사업 대상 마을

내용 전동보장구 안전 교육, 전동보장구 안전 점검 등

축산경영교육

한센인 정착마을 축산 농가의 전염병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를 담은 '정착마을 축산경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시기 상반기 예정

대상 가축전염병 예방, 정부의 방역 정책 등

교육방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협의 중

▶ 한센인 합동결혼식

한센인 부부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심리적 안정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한센인 합동 결혼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실 부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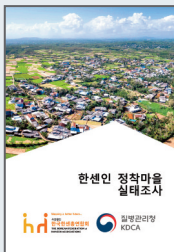
결혼식 일자 10월 중

대상 한센인 부부 5쌍

지원내용 합동결혼식, 야외 웨딩 촬영, 호텔 1박 등

▶ 정착마을 실태조사

한센인 생활환경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향후 국가한센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필요 법안 제안 등을 위한 통계 자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시기 6월 ~ 12월

대상 81개 정착마을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수조사

내용 일반 현황, 생활환경 현황, 복지 욕구 현황 등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청구시한은 2024. 11. 24.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대상자)는 일제강점기하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이어야 하며,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원환자는 1945. 8. 15. 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2024. 3. 29. 기준 151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 4차 1명, 5차 3명, 6차 5명, 7차 3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66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심의 중임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기에 청구시한 전에 2~3개월 여유 있게 한국 변호인단에 서류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 (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 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울산·경남지부 정기총회



3월 14일 총연합회 산하 울산·경남지부(지부장 이상용)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이상용 지부장의 개회 선언과 성원 보고에 이어 ▲2023년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기타 토의 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용 지부장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노력으로 우리 지부가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여 울산·경남지부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중앙 이동검진 사업 강화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김인권)는 후유 장애 및 노인성 질환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검진 서비스 실시 및 지속적인 유소견자 관찰에 의한 질환 분석을 위해 중앙 이동진료를 매년 추진해 왔으며 2024년도에도 총 16개의 정착마을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기초 검사, 안과 검사, 심장질환 검사, X-ray 검사, 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갑상선기능 검사, 간염 검사, 당뇨 검사, 통풍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고지혈증 검사, 간기능 검사, 철분대사 검사, 일반혈액 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등이 있으며 한센사업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월	일	검진마을	지역	비고 (출장일수)	소요시간
4	16(화) ~ 18(목)	도성마을(사후) (17일) 여천마을(사후) (18일)	전남 여수시 전남 여수시	3	15분
	23(화) ~ 25(목)	산청성심원(사후)	경남 산청군	3	
5	21(화) ~ 23(목)	총광마을(사후) (22일) 재생마을(사후) (23일) 현애마을(사후) (23일)	세종시 부강면 전남 함평군 전남 나주시	3	3시간
	28(화) ~ 30(목)	득성마을(사후) (29일) 성진마을(사후) (30일)	경남 함안군 경남 고성군	3	50분
6	12(수) ~ 13(목)	대명마을(표본)	강원 원주시	2	
7	16(화) ~ 18(목)	성곡마을(사후) 영신마을(표본)	경북 포항시 경남 하동군	2	
9	10(화) ~ 12(목)	신흥마을(사후) (11일) 영북마을(사후) (12일)	전북 김제시 경남 사천시	3	2시간 40분
	25(수) ~ 27(금)	영락마을(사후) (26일) 성광마을(표본) (27일)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3	1시간 30분
10	15(화) ~ 17(목)	안동성좌원 (사후)	경북 안동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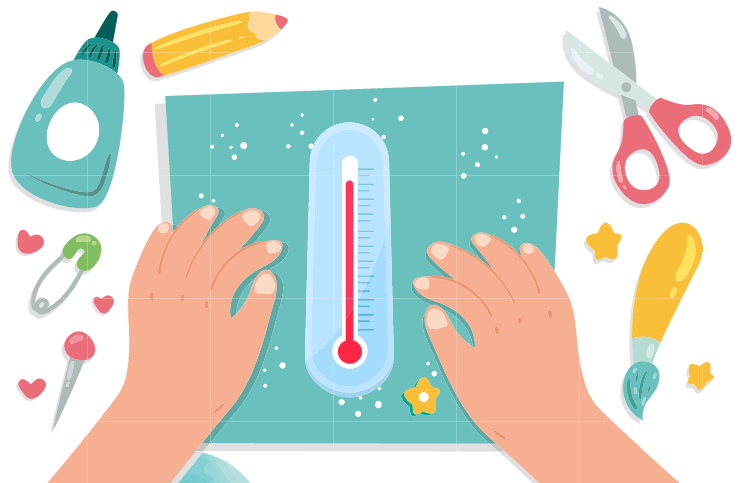
어르신들과 함께 ‘나만의 온도계’ 만들기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온도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온도계 만들기 프로그램은 온도계를 직접 꾸며보고, 방 안의 온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며 온도계의 원리와 측정 방법 등을 재미있게 알아가며, 창의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온도계 만들기 재료를 받아 색연필로 온도계 도안 앞면을 예쁘게 채색하고, 목공풀을 이용해 도안 앞뒤를 붙여 스티커로 꾸미고 뒷면에 자석을 부착하여 동물 온도계를 완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직접 만든 온도계의 작동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 큰 만족감을 얻었다.



웃음꽃 피어난 따뜻한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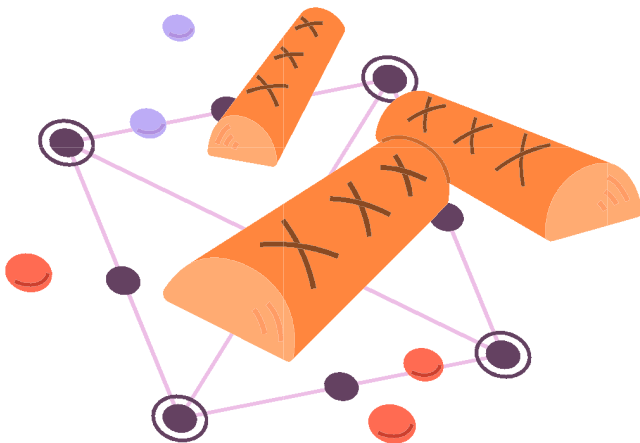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는 2월 2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특별한 행사로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윷놀이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족 고유의 명절을 뜻깊게 보내며, 추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어르신들은 즐거움을 담은 윷놀이를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윷놀이가 끝난 뒤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소통의 장을 열어 친밀감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송정하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센터 어르신들의 안녕과 건강을 소망하며, 함께한 이 시간이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친 구 여!

신재문(영락마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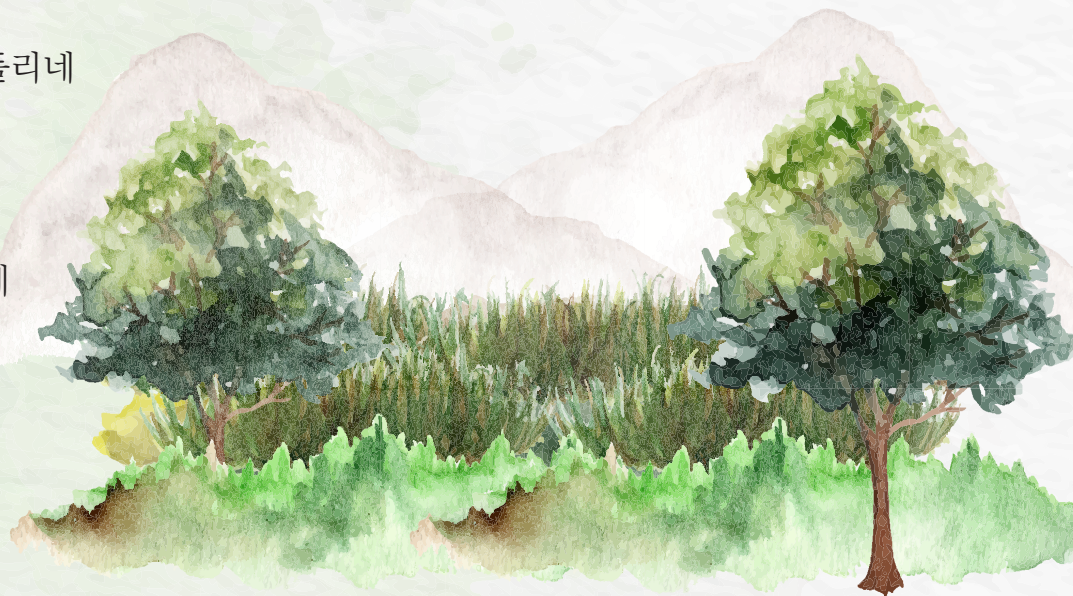
같이 울고 같이 웃던
흘러간 지난 세월
못 잊어 친구 찾아왔네

그리움 참지 못해
친구 앞에 서 있지만
말 없는 친구.
눈물이 대신하여 흐르고 있네

생전에 못다 해준 안타까움
가슴에 남아 슬퍼지는데
어찌하오리까

불러봐도 울어봐도
오지 못한 친구여
못내 마음 아파 발길 돌리네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잘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못 올 길 가버렸네



리더의 품격

박우택(서울·중부지부 지부장)

4월 10일은 우리나라의 일꾼을 뽑는 날이다. 길거리엔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사진과 화려한 경력과 학벌이 적힌 벽보와 현수막이 난무한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능력 그리고 성품이다.

가까이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내면을, 관심법을 터득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일. 입소문에 좌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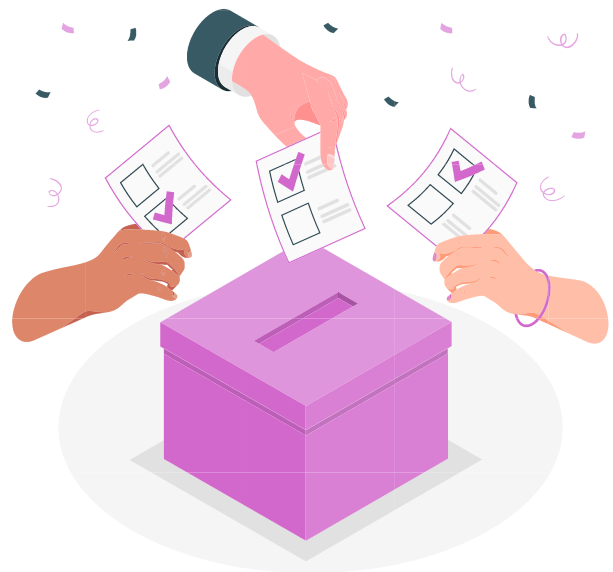
선택하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요 의무다. 선택은 순간이나, 결과는 우리 미래 행복 지수를 좌우한다.

청년 시절 읽었던 책 중에 기억되는 글,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신 3가지’를 소개하고 싶다.

1. Service(서비스), 2. Democracy(데모크라시), 3. Humanism(휴머니즘)
투철한 봉사 정신, 민주적인 사고, 사람 중심의 인간적인 따뜻함.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품격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한센 사회도 거둬 태어나는 심정으로 자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일본 국립 한센병 자료관 방문

글 오문수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만성 감염증이다. 감염해도 꼭 발병하지는 않고 현재는 발병 자체가 드물다. 또 만일 발병해도 급격하게 증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증상 자체는 반점과 지각마비다. 치료약이 없던 시절에는 변형을 일으키거나 낫더라도 심한 후유증을 남겼다. 변형된 외모 때문에 사회로부터 꺼려져 왔었다. 현재는 유효한 치료약이 개발되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의해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고칠 수 있게 되었다.

한센인의 명예 회복과 인권 존중을 위한 자료관

한센병자료관은 1993년에 설립됐다. 일본 '토후협회'가 40주년을 맞아 한센병 환자와 회복자가 살아온 증거를 남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에 호소할 목적으로 1993년 6월 '타카마츠노미야기념 한센병자료관'을 설립한 게 그 시작이다.

한센병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이해를 촉진하고 한센병과 관련된 차별 배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자료관에는 한센병에 대한 편견과 차별, 특히 잘못된 격리 정책의 역사를 학습하고 고난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체험과 마주하기 위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일본국립한센병자료관에서는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한센병환자의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한센병환자들의 작품집 '그림 그리는 게 우리들의 전부였다'는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을 나타낸 표현이 응축된 말이다.

© 일본국립한센병자료관 제공

1층 사무실, 연수실, 영상홀을 거쳐 2층에 올라가면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과 도서관이 있다. 2층 전시실에서는 한센병의 역사, 환자와 회복자의 생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전시실1 '역사전시'

일본의 한센병을 둘러싼 역사를 정책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시실 2 '나병요양소'

치료약이 나오기 전을 중심으로, 요양소, 안의 환자들이 얼마나 가혹한 상황 속에서 생활했는지를 아홉 가지 측면에서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 3 '살아온 증거'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남은 환자와 회복자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방문한 분들이 환자와 회복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도 전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강제격리국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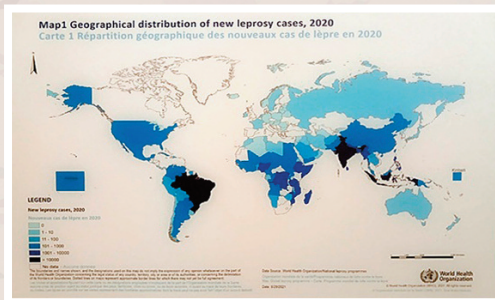
한센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형으로 불렸다. 극심한 신체 훼손과 고통, 피할 수 없는 죽음, 가족 및 사회와의 강제격리, 차별 및 혐오로 인한 낙인으로 한센병자의 삶은 죽음보다 더한 가시밭길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일등국', '문명국'을 자처하며 한센병 유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국가적 수치로 여겼다. 1904년 일본 통계에 의하면 당시 나환자 수가 3만359명에 달했다. 1906년 법의학자이자 중의원 의원이었던 야마네 마사츠쿠가 '나예방법안'을 제출했고 이듬해인 1907년 '나예방에 관한 건'이라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을 근거로 전국에 5개의 격리시설이 세워졌으며 1909년에는 강제격리가 시작됐다. 이 법에는 퇴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종생격리도 가능해졌다. 1915년 공립요양소인 전생원 원장 '미즈다 겐스케'는 결혼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단종수술을 시행했다.

1916년 개정된 '나예방에 관한 건'은 나요양소 원장에게 환자들에 대한 징계검속권이 부여되어 소장의 명령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 환자는 시설 내 감금이나 감식 등의 처벌을 받았다.

부랑 한센병 환자에게만 실시됐던 강제격리는 1931년 '나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그 대상이 모든 한센병 환자로 확대됐다. 1936년 내무부는 '한센병 20년 근절계획'을 수립하고 '무라현운동' 즉, 한센병 환자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다.



◀ 2020년 WHO가 발행한 전세계 한센병 발병국 현황으로 시커멓게 칠해진 국가에서는 아직도 1만명 이상의 환자가 있다.

© 일본국립한센병자료관 제공

근대국가는 우생학의 이름으로 국민의 신체를 관리했고 한센병자는 열성 신체, 비정상 신체로 여겨 국가가 관리하는 요양소에 격리되었다. 요양소의 본질은 수용소였고, 격리의 실체는 강제 영구 격리였다. 한센병자는 세상과 유리되어 죽어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불온한 존재, 즉 비인간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경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나병증세를 보인 한반도 환자만 하더라도 3천명에 이르렀다. 1916년에 세워진 소록도 한센병요양원도 일본의 법제도와 강령을 그대로 따랐다.

일본국립한센병 자료관에는 재일교포 3세인 김귀분씨가 근무하고 있다. 북해도에서 태어난 그녀는 박물관 학예연구원을 목표로 대학원을 마친 후 한센병 자료관에 2005년에 취직했다.

대학원에서는 한국의 서예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박물관 입소자의 문화 활동이나 미술 제작에 대해 관여했고 입소자분들 중에 한국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국인 입소자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일본 전국에 산재한 14개 한센병요양소에 입원해 있는 한국인 한센병 자료를 조사하던 중 출판사에서 이 주제로 책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책을 출판했다. 그녀가 쓴 책은 <재일조선인 한센병>이다.

그녀의 책에는 전국에 산재한 일본한센인요양소에 입소한 한국인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일본어로 발간된 책 속에는 한국인 한센병자들의 절절했던 사연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김귀분씨가 한국인 환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 동경에 있는 일본국립한센병에는 재일교포 3세인 김귀분(좌측)씨가 근무하며 자료관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해설하고 있다. 올해 80세인 기무라씨는 필자를 위해 3일 동안이나 동행하며 통역과 안내를 맡은 양심적 지식인이다. 두분 옆에 세워진 모녀상은 과거 한센병이 불치병이라고 두려워하던 시절 시코쿠 순례를 떠난 한센병 환자의 동상이다. 모녀상은 한센병 환자들의 고난의 역사를 사회에 알리고 다시는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바람으로 1991년 다마전생원 진언중에서 발원해 전국에서 기부 받아 완성됐다.

© 오문수



◀ 재일교포 3세 김귀분씨의 저서 <재일조선인 한센병> 모습. 한국어판이 없어 아쉬웠다. 책에는 일본 전국에 산재한 14개 한센병요양소에 입소했던 한국인들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오문수

"일본 전국에 요양소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700여명의 한국인 환자가 입원했었고 현재는 30명 정도가 입원해있어요. 이미 입소자의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어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적었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해서 집필했습니다."

일본에서 한많은 생 마감한 김하일의 기구한 삶

김귀분씨가 선물해준 <재일조선인 한센병> 책을 받아 들고 필자를 안내해준 기무라 선생님과 함께 밤10시 까지 글을 읽던 중 김하일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둘 다 눈시울을 적셨다.

1926년 경상북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김하일은 1939년에 일본에서 노무자로 일하던 부친의 편지를 받고 모친, 형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겨우 13살이었다. 낮에는 과자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 다니며 조선에서 할 수 없었던 공부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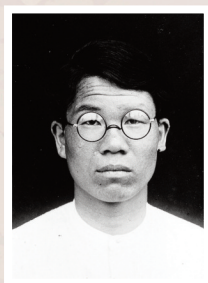
그러나 2년 후인 15살에 한센병이 발병해 1941년에 전생원에 입소하게 됐다. 1945년 공습에서 불길의 습격으로 실명하게 되었고 일본 문학 형태인 '단가'를 배웠다.

한센병으로 손마디가 잘리자 '설독'을 통해 자신의 한많은 생을 그려냈다. 해방 후 이산하게 된 어머니와 형제들, 병에 걸린 자신 때문에 귀국도 못하고 일본에 머물다 타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한 것들도 그의 시세계에 포함되었다. 다음은 김하일의 '단가' 중 한편이다.

한국에 함께 돌아가자 말하는 형이지만 나병 걸린 이 몸은 언제나 말이 없네
어머니 태운 기차소리 멀리서 울려오는데 나는 홀로 병실로 돌아오누나
고원의 추위 견디라고 숨넣어 만들어주신 버선에서 어머니 생각이 나네
어머니 생각 잊지 않기 위해 조선식 버선 신어보고 다시 또 가방에 넣네

'인간이 죽어야 생명이 산다'는 한센병환자 호조다미오의 소설<생명의 초야>

필자가 전생원을 방문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한센병문학의 최고봉'으로 꼽았던 '호조다미오'의 소설 속 배경을 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호조다미오'는 육군 경리부 하사관이었던 부친의 부임지 조선의 경성(서울)에서 1914년 출생했다.



◀ 일제강점기인 1914년 경성(서울)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돌아가 20세에 발병해 21세에 전생원에 입원해 24세에 생을 마감한 '호조다미오' 모습. 일본 문학가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호조다미오를 '한센병문학의 최고봉'이라는 칭찬을 했다. 필자는 그의 저서 <생명의 초야> 배경을 알고 싶어 전생원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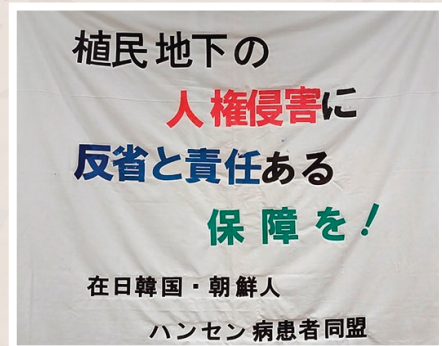
© 일본국립한센병자료관 제공

호조다미오는 20세에 한센병 확진 판정을 받고 21세에 전생원에 입원해 24세에 죽음을 맞이한다. 한센병은 한센병자에 게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타자의 영역이다. 그 낯선 타자를 받아들이고 한센병자로서 살아가기까지의 비극적 과정이 <생명의 초야>에서는 생생히 그려져있다. <생명의 초야>는 호조다미오가 전생원 입소 첫날 자살을 시도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일본은 1996년까지 한센인을 강제 격리 시켰고, 이에 일본 한센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정부로부터 끝내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 일본 한센인과 소송 변호단 그리고 시민단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 행해졌던 한센인 강제격리에 대한 일본의 책임까지 물었다.

한국-대만 소송지원 현수막. 2005년 재판 결과 한센병보상 법이 개정되어 한국과 대만사람들도 보상을 받게 됐다. 이 현수막은 재판을 지원하던 일본 한센병요양소에 사는 재일교포 입소자 단체가 제작한 현수막이다.

© 일본국립한센병자료관 제공



◀ 맨 오른쪽이 나가사키에서 동경까지 비행기를 타고와 3일간 안내를 맡은 기무라씨고 기타를 들고있는 분은 기무라씨 여동생 남편으로 50년간 지인들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하는 전직 건축설계사이다. 동경에서는 기무라씨 여동생 부부는 이틀간이나 필자에게 맛있는 음식과 쾌적한 방을 제공해줬다. 올해 80세인 기무라씨는 소설 <태백산맥>을 두번이나 읽고 합천에 있는 원폭희생자 마을에서 한 달간 봉사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비를 들여 한국인 징용희생자 유골 반환운동을 하는 양심적 지식인 중 한 분이다.

© 오문수

일본과 대만은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차별 역시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국가가 인정했지만 한국은 국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한 성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한센병환자로 낙인찍히면 국가와 가족, 사회에서 버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과 학업에도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는 한센병에서 치유된 사람을 '회복자'라고 칭한다. 반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낙인을 찍은 한국인들은 아직도 한센인이라고 부른다.

도성의 사계 ‘엷히고 설키다’

도성마을(전남 여수시, 대표 강수웅)에는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사회와 마을의 상호작용을 돕는 작은 예술공간 에그갤러리(관장 박성태)가 있다.

에그갤러리 명칭은 여수 애양병원에서 치료받은 한센인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자립 수단으로 대규모 축산 양계업을 해 온 것을 착안해 ‘Egg(달걀)’로 명칭을 정했다.



매년 다양한 전시회를 선보이며 도성마을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도성의 사계, 얹히고 설키다’라는 주제로 도성마을 주민과 일반인, 사진작가 등 39명이 참여해 도성마을을 촬영한 사진 150여 점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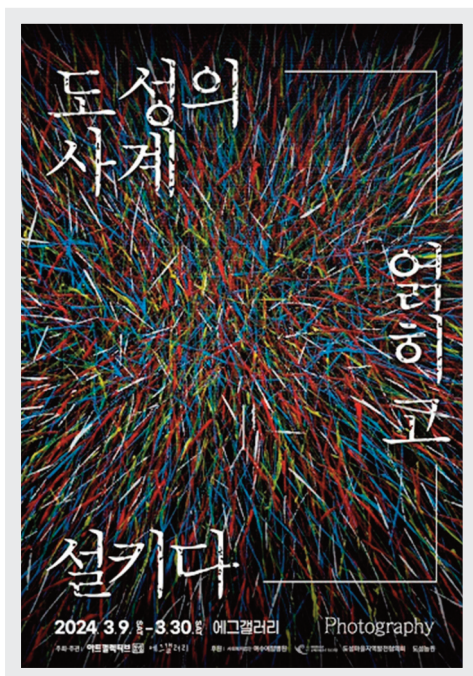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작가마다 고유한 생각들을 담아 각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사진들로 다양한 시선이 담겨 있어, 시선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재미와 낯설고 생소한 사물과 장소를 열린 마음으로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흔히 말하는 공존과 공생이 전체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은밀한 차별과 배제를 숨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번 사진전은 촬영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등 모든 명제표를 부착하지 않고 전시하는 방식을 통해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가치를 실현하여 관심을 끌었다.

박성태 관장은 도성마을의 독특한 색깔과 매혹적인 사계절을 고려하여 ‘도성의 사계’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삶과 편견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전시 포스터 이미지는 광양의 정현영 작가가 도성마을 운동장의 풀을 세 가지 색으로 그린 것으로 주민은 파란색, 일반인은 노란색, 작가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서로 얹히고설켜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에그갤러리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도성마을에 개관해 현재까지 18회의 전시와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만여 명이 마을을 방문하는 소통의 다리로 역할하고 있다.

한센인 정착마을이라는 장소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개관 때부터 미술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성태 관장은 “특별한 것은 없다. 저희는 중심부와 주변부를 잇는 일종의 다리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이웃으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에그갤러리는 특별한 6가지의 운영 방침도 관심을 끌고 있다.

첫째	주민과 함께하는 갤러리
둘째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갤러리
셋째	작가를 키우는 갤러리
넷째	컬렉터가 찾는 갤러리
다섯째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하는 갤러리
여섯째	동시대의 이슈와 담론에 주목하는 갤러리

함께하는 마을, 함께하는 문화,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

도성마을 강수웅 대표는 “에그갤러리 박성태 관장 덕분에 소외와 편견 속에서 살았던 우리 마을이 문화적으로 꽃피우고 사회적으로 개방되어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도성마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센인 정착마을이라는 역사적 짐을 짊어지고 소외된 공간이었던 도성마을. 그곳에 예술이라는 빛이 비추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으며,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소통과 소생을 이끄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이란?

-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이지만 나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한센병 증상

-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 가렵지는 않지만 따듯하거나 차갑거나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피부 병소가 생기기 전에 신체의 주요 신경을 잠식하여 신경통 증상으로 임파선이 붓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증상이 오래될 경우 손가락, 발가락 등에 힘이 없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센병 치료시 주의사항

- 처방약물은 규칙적이고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 약물투약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피부염, 피부착색,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
- 기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고 진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한센병 관리를 위한 권고처방은 다양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의논 후 투약 처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권고처방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한센병 치료로 최상의 치료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센병, 궁금해요!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119



환자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환자

의사

일반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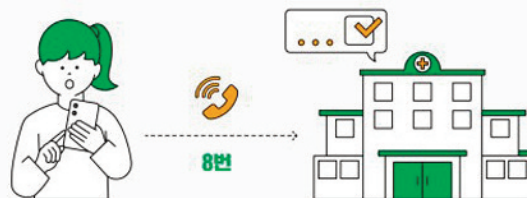
심평원 홈페이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복지부 129
	건보공단 1577-1000
	심평원 1644-2000

※ 관련 문의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 129-연결 후 8번
의사 집단행동 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환자

129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만 이용 권고합니다.
경증환자 이용 시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국 상급종합병원(총 47개소)



서울권(14개소)

- ① 강북삼성병원 ② 건국대학교병원
- ③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④ 삼성서울병원
- ⑤ 서울대학교병원 ⑥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 병원
- ⑦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 ⑧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⑨ 중앙대학교병원
- ⑩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⑪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 ⑫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⑭ 한양대학교병원

충북권(1개소)

- ①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개소)

- ①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② 충남대학교병원
- ③ 건양대학교병원

전북권(2개소)

- ① 원광대학교병원
- ②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개소)

- ① 전남대학교병원
- ② 조선대학교병원
- ③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개소)

- ①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②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 ③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④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북권(5개소)

- ① 경북대학교병원 ② 계명대학교동산병원 ③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④ 영남대학교병원 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기 남부권(5개소)

- ①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②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③ 아주대학교병원 ④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⑤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경남권(8개소)

- ① 동아대학교병원 ② 부산대학교병원
- ③ 양산부산대학교병원 ④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 ⑤ 학교법인울산공원학원울산대학교병원
- ⑥ 경상대학교병원 ⑦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 ⑧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강원권(2개소)

- ① 강릉아산병원 ②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우리나라 당뇨병 연구의 근간이자 국가보건정책의 길잡이가 되다

[출처 : 경희의료원보 프리포즈 2023년 겨울호 vol.448 中]



전숙 경희대학교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경희대학교병원 2005년 ‘제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 (KNDP)’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현재까지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을 이끌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특성과 치료, 관리지침을 연구해 오고 있다. 전숙 교수는 다양한 국책 연구의 맥을 이으며 국내 당뇨병 국가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힘써왔다.

■ 전문 진료분야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 부신, 내분비질환

■ 약력 및 학회 활동

경희대학교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이며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과장을 맡고 있다. 경희대학교의과대학 의학교육실장으로서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식품영양위원회 이사 및 평의원, 대한내분비학회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비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등 유수의 학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분비 및 대사질환에 대한 학술, 연구,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훌륭한 교수님들의 리더십 따라 여기까지

2005년 보건복지부 지정 ‘제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Korean National Diabetes Program, KNDP)’는 우리나라 최초로 제2형 당뇨병에 관한 국가적 임상 코호트를 구축해 9년간 추적한 대형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당뇨병 임상연구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희대학교병원은 이 연구의 주관기관으로 국내 12개 대학병원을 이끌며 당뇨병의 초기 치료와 합병증 관리, 예후 발생에 관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국내 최초 호르몬 측정이 가능했던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센터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료기관입니다.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관련 검사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표 연구기관이기도 하죠. 저는 최영길 교수님, 김영설 교수님, 김진우 교수님, 김성운 교수님, 우정택 교수님과 같은 훌륭한 교수님들의 리더십을 따라 다양한 국책연구를 진행해 왔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희대학교의과대학 교수진들과 함께 환경호르몬이 비만과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AhR 리간드에 의한 대사증후군 발병기전 및 진단법 개발’ 연구도 괄목할 만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인 식생활 이상, 운동 부족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환경교란물질이 당뇨병과 대사질환 발생에도 큰 위험인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 임상적으로 증명한 연구다.



“프랑스 당뇨병센터에서 연수하며 느낀 점은 환자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과 같은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 진료실에서 제가 더 노력하게 된 것은 진료받으러 오신 환자를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아들, 딸로 여기는 태도예요.”

“많은 연구가 의미 깊지만, 우정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한 초기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기억에 남아요. 처음 진단받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부터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하루 4회)를 하면서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한 결과, 3~4개월 후 환자분들이 인슐린이나 약제 없이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 혈당조절을 잘하게 되었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를 경험하면서 현재 당뇨병 치료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120kg이 넘는 고혈당 환자가 1~2년 사이 약 25kg 이상 감량하면서 최소한의 약제로 지금까지 혈당 조절을 잘하고 계신 사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중적인 생활 습관 관리와 체중 감소가 당뇨병 치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당뇨병전단계와 당뇨병예방 정책 연구에 집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질병관리청과 함께하는 ‘한국 인당뇨병예방연구사업(Korean Diabetes Prevention Study, KDPS)’은 현재 전속 교수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인 연구다.

“당뇨병이 발병되기 이전상태인 ‘당뇨병전 단계’ 분들이 1,500만 명에 달해요. 우리나라 5천만 전체인구의 30%에 해당하죠. 이 연구는 당뇨병전단계 국민들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임상연구예요. 전국 15개 대학병원과 대한당뇨병학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죠. 국가 당뇨병 예방정책을 세우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속 교수는 과거 프랑스 당뇨병센터에서 연수한 적이 있다. 그때의 경험이 환자를 대하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전한다.

“환자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과 같은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 진료실에서 제가 더 노력하게 된 것은 진료 받으러 오신 환자를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아들, 딸로 여기는 태도예요. 개인적으로도 매우 귀한 분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환자가 각자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채혈 없이도 OK! 몸에 부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상용화

- 최근 당뇨병 분야에서 가장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여겨지는 연속혈당 측정기
-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손끝 채혈을 통한 자가혈당측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 연속혈당측정기는 팔 또는 배 부위에 부착해 채혈 없이도 실시간 혈당 확인 가능(매 1분~5분마다, 24시간 내내, 1회 부착 시 10일~15일 지속)
- 실시간 혈당 확인으로 당뇨병 환자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혈당 변화, 치료약제의 선택, 저혈당 또는 고혈당의 위험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커짐
- 단, 비용이나 부작용 등은 의료진과의 상담 필요

안 씻어서 긁는게 아니야?

- '몸을 긁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가려움은 흔히 씻지 않거나 피부에 질환이 있어서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다.

잘 씻고, 피부질환이 없어도 자주 긁적이는 사람들.
우리가 잘 몰랐던 '몸을 긁적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거짓말

대화중에 간혹 얼굴 주면을 긁적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없는 얘기를 지어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 코 주위나 얼굴 주변이 가려울 수 있다.

체중 증가

갑작스런 체중 증가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 허벅지나 팔뚝 등을 자주 긁곤 한다.

살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살이 찢어지는 '튼살'에 가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과체중이 지속 될 경우 체내 염증 물질이 증가해 피부가 민감해지고 땀띠 등 피부질환이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알코올 알레르기

축구 보면서 치킨에 맥주, 비오는 날 부침개에 막걸리, 반가운 친구들과의 소맥.
맛있고 즐겁게 즐기는 술자리에서 유독 몸을 긁는 사람들이 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 되 생기는 ‘알코올 알레르기’, 술을
마시며 체온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콘린성두드러기’로 인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

스트레스

겉으로 보기에다 많이 불안해보이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인성
가려움증’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 염증의 증가로 이어지면 몸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
우울증, 강박장애 등을 앓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성 가려움증을 더 잘 느낀다.

빈혈

흔히 철이 부족해 생기는 빈혈증상으로 핑하고 도는 어지러움을 생각하기 쉽다.
철은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신경구성 성분으로 철이 부족하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

당뇨

휴식을 취해도 피곤하고, 최근에 체중이 증가, 식사 후 식곤증이 심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몸이 가렵다. 이는 대표적인 당뇨 전조증상으로 몸이 가려워서 피부과를 갔다가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건조한 피부

일반적으로 씻지 않아서 몸을 긁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깨끗함에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려움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너무 잦은 세안이나 샤워 등은 필요 이상의 피지나 각질들을 벗겨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저하, 따끔거림과 함께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오늘도 긁고 넘기시나요?

무섭게만 느껴지는 ‘통증’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가려움증’

요즘 가려움증이 심해졌거나 특정 상황, 음식 등에 더 가렵다고 느껴진다면,
내 마음에,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5월에는 먹어야 할 제철음식 6가지

제철음식은 맛과 영양이 가장 풍부한 시기여서 해당 시기에 꼭 섭취해야 한다.
푸르고 푸른 5월에는 꼭 먹어야 할 제철음식 6가지를 알아보자.

— 키조개 —

타우린이나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하고 피를 맑게 해줘서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을 예방한다.

특히, 타우린은 간해독작용과 함께 간기능을 활성화해 피로회복 및 간건강을 증진해 준다.

지방함량과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미용에도 효과적이다.



— 장어 —

대표적인 스테미나 음식 '장어'

장어의 아르기닌 성분이 피로감을 해소하고 기력과 체력회복에 도움을 준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 혈류 흐름을 좋게
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A, B, E와 칼슘, 인,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있어 면역력을 높여준다.

— 매실 —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등의 유기산이 풍부해서 혈중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피로 회복에 도움준다.

또 피크르산 성분이 독성물질을 분해시켜 식중독, 복통, 설사, 배탈 등의 질병을 예방해주고 피루브산 성분이 간의 기능을 높여준다.

매실 신맛은 소화액을 촉진해 소화불량을 해소하고 위산분비를 조절해 위장장해를 개선해 준다.



— 대추 —

‘천연신경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심신안정에 효과적인 대추

폴리사카라이드,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성분이 함유돼 있어 신경안정 및 불면증개선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이 성분이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재생을 돕고 피부미용 및 노화방지에 효과적이다.

특히 베툴린산 성분이 소염작용을 해 관절염, 피부염 등 각종 체내 염증을 완화해 준다.

성질이 따뜻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 냉증치료에도 탁월하다.

— 멧게 —

지방질이 거의 없는 저칼로리 식품인 멧게

멧게에 함유된 바나듐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다.

또한, 바나듐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혈관질환 개선 및 혈관건강을 증진해 준다.

타우린 성분이 피로를 풀어주고 신티올 성분이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을 빠르게 분해해 숙취해소에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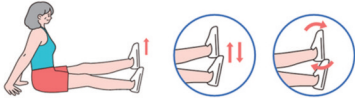
— 다슬기 —

다슬기는 다양한 아미노산과 타우린 성분이 함유돼 있어 간을 보호해 간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탁월하다.

또 마그네슘이 많이 있어 결석예방 효과 및 칼슘 함량이 높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각종 미네랄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히 해 변비예방 및 변비개선 효과가 있다.

05. 다리근력 운동



1. 앉은 상태로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5cm 들기
이때 발끝은 천장을 향해 들 쪽으로 당기기. 5초간 자세유지
왼쪽도 동일하게 수행
2. 1번 자세에서 다리 위로 들었다 내리기 5회 수행 왼쪽도 동일하게 수행
3.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 닿지 않게 든 상태에서 뒤꿈치로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원 그리기
시계방향 5회, 반시계방향 5회 실시. 왼쪽도 동일하게 수행

06. 균형 잡기 운동 1



1. 양발을 11자로 붙여 선 상태로 의자를 잡기
2. 발가락을 모두 들어 3초 동안 바닥에서 떼기
3. 뒤꿈치를 3초 동안 최대한 들기
4. 2~3번 동작 반복을 총 10회 수행

07. 균형 잡기 운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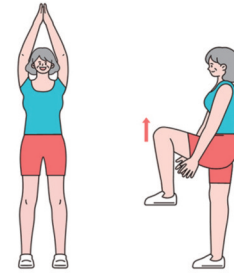
1. 양발을 11자로 붙여 선 상태로 의자를 잡기
2. 오른쪽 다리 발등이 정면을 향하게 다리를 옆으로 들었다 내리기 8회
반복 후 왼쪽도 동일하게 수행

08. 균형 잡기 운동 3



1. 의자를 잡거나 벽을 마주보고 서기
2. 오른쪽발을 앞으로 들어올려 귀 옆에 팔이 오도록 뻗기
3. 왼쪽 다리를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뒤로 돌리기
4. 약 3초간 자세 유지 후 1번 동작으로 돌아오기
5. 8회 반복. 이후 반대편도 동일하게 수행

09. 박수 다리들기



1. 제자리에 선 상태로 양팔을 들어 머리위에서 박수치기
2. 호흡을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 주고
팔은 내려 오른 다리 아래에서 박수를 치기
3. 왼쪽도 동일하게 수행. 총 10회 반복

100세시대 건강한 노화를 위한

낙상 예방운동

주 2회 이상 근력운동과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걷기를
통해 낙상 위험을 함께 관리해보세요!



낙상 주요원인



보행이상 시력저하 관절염 주거환경

낙상을 예방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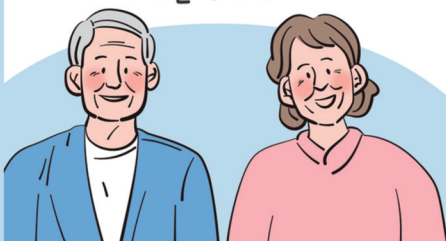
1. 규칙적인 근력 운동하기
2. 집안에 낙상 위험요소 제거하기
3. 복용중인 약 확인하기
4. 정기적인 시력검사

운동하기 전 체크해보기

질 문	응 답
1. 허리, 무릎, 발목 등에 관절염 있음	예/아니오
2. 최근 3년 이내 허리 또는 무릎 수술 받음	예/아니오
3. 의자에 앉았다가 혼자서 일어설 수 없음	예/아니오
4. 최근 3년 이내 골절을 경험함	예/아니오

※ 위 질문에 "예"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이 운동을 시작하세요.

매년 65세 이상 노인 중 30%가
낙상을 경험합니다.



낙상 예방운동

운동 하루 2번 이상, 주 2회, 최소 6개월 이상

01. 스트레칭 : 목, 허리, 몸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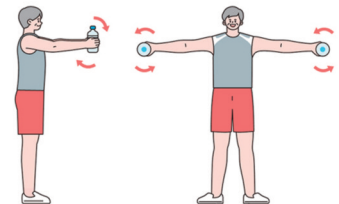
1. 목을 앞, 옆, 뒤로 5초 씩 스트레칭
2. 오른 팔을 옆으로 들어서 오른쪽 허리 8초간 늘리기
이후 반대편도 동일하게 수행. 총 2회 진행
3. 양손을 깎지껴서 머리위로 들기. 8초 동안 몸통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2회 반복. 이후 반대편도 동일하게 수행

02. 주먹 쥐었다 펴기(잠잠운동)



1. 양손을 5초 동안 힘을 주어 주먹 쥐기. 이후 손을 펴기 총 10회 반복

03. 어깨운동 : 팔로 원그리기(앞, 옆)



1. 양손을 주먹 쥐고 팔을 앞으로 뻗기(아래높이)
천천히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원 그리기
2. 양손을 주먹 쥐고 팔을 옆으로 뻗기(아래높이)
천천히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원 그리기

04. 제자리 무릎 들기



1. 양발을 모으고 선상태로 양손은 허리 잡기
2. 호흡을 내쉬며 오른쪽 무릎을 가슴높이까지 들기
이어서 왼쪽 무릎도 가슴높이까지 들어올리기
1분 동안 수행 혹은 양 무릎 들어올리기 1회 기준 20회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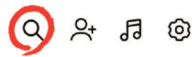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친구



한센사랑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 한국한센총연합회

채널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친구 81 명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한 단체입니다



채팅하기



채널 추가

소식

정보

☎ 상담원 채팅

월, 화, 수, 목, 금 09:00~18:00

📄 기관/단체 > 복지

🌐 <http://www.hansenkorea.org/>

☎ 02-1566-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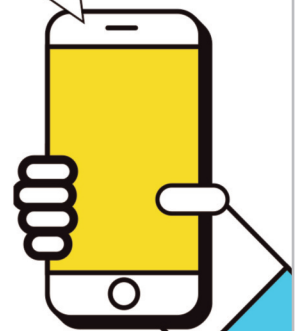
✉ hansen@hansenkorea.org

연택호시대에도

당신의 온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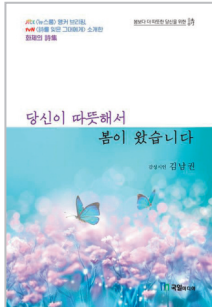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책

자료제공 : 교보문고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봄보다 더 따뜻한 당신을 위한 시”

매서운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천천히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는 이때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시가 있다. 따뜻하고 화사한 봄을 노래하는 김남권 시인의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라는 시다.

저자는 국민시로 애송될 만큼 사랑받는 네 편의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와 함께 화사한 봄, 따뜻한 봄, 설레는 봄을 노래하는 61편의 봄의 시, 그리고 그리운 날, 좋은 날을 노래한 40편의 디카시를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는 제목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당신을 위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 봄이, 당신의 화사한 봄이, 당신의 설레는 봄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삶을 건디는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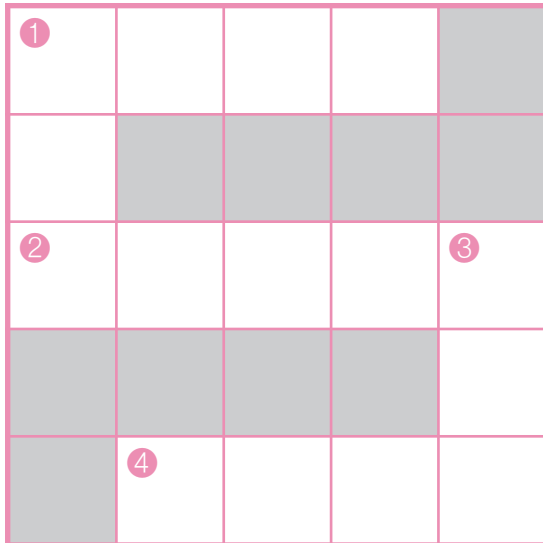
힘든 시절 우리를 위로해 주는 헤세의 따뜻하고 다정한 문장들

고향, 자연, 예술에 대한 뜨거운 고백을 담은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집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에 이어 이번에는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삶을 건디는 기쁨》이 필사 노트와 함께 출간되었다. 필사 노트에서는 독자가 사랑한 헤세의 문장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저마다의 이유들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헤세가 건네는 경이롭고 다정한 문장들은 삶을 건디는 기쁨이 되어 줄 것이다.

헤세는 1946년, 노벨문학상과 괴테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작가로서 눈부신 영광을 얻었다. 그러나 조국 독일에 대항해서 반전 운동을 펼치면서 같은 독일인들에게 온갖 비난을 당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아내는 정신병을 앓았고 헤세 자신도 예민한 감수성 탓에 어렸을 때부터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등, 힘겨운 일생을 보냈다.

자신의 경험을 수필, 동화, 시 등 다양한 장르의 글과 그림으로 옮겨 두기도 했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지난호 정답

1 생	선	2 전		
활		동		
플		보		4 지
러		장		도
스		3 구	원	자

가로세로 낱말 퀴즈

가로문제

-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로 총연합회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직접 찾아가 문화 공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P12 참조)
- 총연합회는 5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1회 ○○○○○'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 행사는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다. (P14 참조)
-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 태양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둡게 보이는 현상.

세로문제

-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 익히지 않은 음식

참여방법

우편, 이메일, 총연합회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우편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아이리스빌딩 2층 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앞
- 메일주소 : hansen@hansenkorea.org
- 카카오톡 : '한국한센총연합회'로 검색 및 채널 추가 후 정답 전송
- 보내실 내용 :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정답(정답이 기재된 사진 또는 종이)
- 문의전화 : 02)1566-2339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용품
또는 기록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 · 학술 · 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본부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15-5501	(032)515-5504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2-3(청천동)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 11 402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3·4월호